

학장: 지금 오연천 총장님과 빌 게이츠 씨가 도착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과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이우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빌 게이츠 씨를 모시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팔에 붓대를 걸친 제 모습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빌 게이츠 씨를 직접 만나게 되어 매우 흥분한 나머지 그와 악수하는 연습을 너무 하다 보니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굳이 빌 게이츠 씨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분이시죠. 그는 아마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기업가일 것입니다.

이분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물론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한 열정으로 잘 알려져 있고, 컴퓨터의 권위자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위대한 인도주의자로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분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처럼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의 연사님을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저희가 훌륭한 손님을 초청하게 되면 예우에 관한 세심한 배려를 하기 마련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점검하는 일은 손님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분의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의 성공적인 경력을 쌓는 동안 사장, 회장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직함들을 가지고 계셔서 매우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절차로 저희가 호칭 문제에 대해 문의한 결과 그의 대답은 매우 간단하였습니다. 단지 빌이라고 불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질문하실 때면 빌이라고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장: 이에 따라서, 오늘의 행사는 특별히 친근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로서의 제 역할은 한마디로 손님 맞을 준비로 상차림을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의미에서 제 관심 분야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준비한 질문들은 여기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내용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이제 저는 자리에 앉겠습니다. 연사님, 준비가 되셨습니까?

빌: 네, 그렇습니다.

학장: 저희 서울 대학교에 귀하를 모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장을 오시는 길부터 강연장 안이 만석에 이르기까지 보시다시피 저희 교수진들과 학생들이 이 강의에 대해 보여준 열정은 가히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귀하의 미래창조 혁신에 대한 비전과,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 희망적인 사업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Bill & Malinda 재단의 박애주의적인 노력이 가져온 건강보호의 향상, 빈곤 퇴치, 교육기회의 확대 속의 진정한 개조와 변화에 관하여 귀 기울일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떠난 후부터, 귀하는 농업, 에너지, 전염병 등과 같이 가장 어렵고 도전적이고 할 수 있는 세계 도처의 문제들에 대한 혁신적인 해법을 찾는 데 전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귀하의 한국 방문은 이런 여러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한국 방문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빌: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지난 5년 동안 방문하지 못했고 제가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는 전직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전임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물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일로 수 차례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LG, 삼성 등 수 많은 핵심적인 동반 협력 기업들이 개인 컴퓨터화 실현을 같이 도왔고 그로써 모든 소비 대중들에게 인터넷을 염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번 주제의 초점은 아닙니다. 이번 주제의 초점은 Terapower 라고도 불리 우는 핵에너지 관련 신설 회사의 재단과 관련 된 사업에 관련이 더 많습니다. 재단과 관련하여서는,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제적 협력이 초점의 대상입니다. 즉 국제적 협력과 농업이 초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혁신의 혜택은 잘 사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어떠한 형태의 창조 혁신이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빈곤한 사람들에게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작은 농장을 가진 영세 농민들 대부분들에게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조건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들 보다 사망 확률이 50 배나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을 활용하여야 하고, 그것이 보건학이 되든지 디지털 기술 도구이든간에 그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 한국의 훌륭한 기술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며 소통하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이번 방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뵙고 그분이 한국에 대해 구상하시는 야심 찬 의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 농업, 에너지에 관한 어떠한 사업들이 설계 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한국의 어떤 창조 혁신 계획들이 제가 맡고 있는 재단의 새로운 직무와 부합되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학장: 아마 학생들이 귀하의 답변에 대하여 더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주요 질문은 교육, 즉, 창조적인 자본으로서의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의 방문은 서울대학교와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러한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년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었습니다만 1990년도 중반까지 제조국으로서 발돋움을 하여 겨우 가난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자, 과거의 성공의 방식이 미래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경제국가가 되기 위해서 한국은 새로운 종류의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제조하는 데는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에는 혁신을 가져다 주는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능력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는 생산에서 창조로 이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각한 변화의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약 2개월 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고 대통령의 최우선 목표는 소위 말하는 '창조 경제'입니다.

따라서, 최고의 창조 능력은 서울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자 최대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 학생들이 세계에서 가장 명석하다는 평판을 자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한국은 성공의 판단 기준을 단순한 시험 점수 범위를 넘어서서 좀 더 폭 넓은 기준으로 넓히는 문화를 정착 시키고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창의적인 졸업생들을 배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같은 최고의 명문을 중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대부분의 한국인들, 특히 한국의 학부모들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왜 귀하는 하버드를 중퇴하게 되었는데 궁금하고, 더 중요한 질문으로, 창의성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빌: 좋은 질문입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학교를 중퇴 할 때 처음에는 크게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사립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는 것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하버드 대학교 학비도 잘 지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할 기회가 오기 전까지 저는 하버드 대학교를 2년 동안 잘 다녔습니다.

그 회사를 창립했던 것은 매우 독특한 기회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컴퓨터를 칩에 장착하는 microprocessor는 컴퓨터 산업의 기본 운영 원리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고, 그 당시 컴퓨터업계에 몸 담은 사람들에게 컴퓨터는 비싼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변화하는 컴퓨터 산업이 가져온 엄청난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컴퓨터는 매우 저렴하게 바뀌어지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는 단순한 가격의 수치적 차이만이 아니라 개인 용도의 도구로서 질적으로도 차이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IBM이나 WANG 과 같은 다른 디지털 업체 혁신자들조차도 컴퓨터 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간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제 친구 폴 앨렌은 그 당시 컴퓨터 산업의 향후 방향을 감지했고 시장에서 선구자가 되어 싶은 마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위를 마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교를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길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마땅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법칙이 되기보다는 예외가 되는 쪽이 더 이상적이겠지요.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긴박하게 마쳐야 하는 것은 딱히 없습니다. 한국이 현재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서 큰 공헌을 해야 한다는 사명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과거에 많은 원조를 받은 국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상당한 원조를 베푸는 유일무이한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는 한국의 역사는 매우 대단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 저는 국회를 방문하여 원조에 대한 이야기를 국회의원들과 나누면서, 한국이 더욱 더 원조의 수준을 높여 도움이 필요한 다른 나라들에 더 베풀 수 있도록 격려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른 나라의 선례를 참고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앞서 원조를 시작한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따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여기 한국의 기업들과 기관 단체들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으며, 실제로 한국을 따라 올 만한 존재가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농업, 과학, 핵을 포함한 에너지 등에 대한 혁신을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제 절대적인 최선봉을 향해 눈길을 높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 보다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가치이며 꼭 보유해야 할 기술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제조업에 다시 힘을 쏟아야 한다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가 없이는 어느 분야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현재의 강점인 제조업을 저버릴 필요는 없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하려는 능력은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런 한국의 혁신에의 노력은 현재 인터넷에서 많은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요. 특히 한국은 인터넷 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인터넷 가격도 저렴한데다 인터넷 보급률도 높은데 이것은 매우 감탄할만한 일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많은 선도기업들은 매우 혁신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창조성은 어떤 면에서는 폭넓은 지식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한가지 분야에서만 공부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저는 화학, 물리, 생물, 수학, 컴퓨터 공학 등 여러 과목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알 필요는 없지만, 수학에 대해 더 잘 알수록 사정이 더 좋아진다는 것은 잘 아시겠죠. 그래서 넓게 생각하면서 저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 항상 통찰하게 됩니다. 저는 심지어 가난한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알아보기 위해 일년에 수 차례 출장을 가서 어느 방안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어느 것들이 바뀌어야 하는지 보고 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앞을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창조적이기 위해서는 젊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물을 백지 상태에서 들여다 보게 되고 현대 과학에서는 사물에 모델을 설정하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를 당연하게 받아 들이는데, 불과 10년전에 교육 받은 사람들만 해도 많은 데이터를 들여다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일정한 양식을 찾아내는 것은 할 수 없었던 생각입니다.

과거에 수학이 과학의 시녀 혹은 보조자로 불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컴퓨터 공학 또한 데이터가 동력이 되는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흥미롭게도, 학부생들은 공부해야 할 분야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입니다.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한가지는 제가 전임 학생 신분으로서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떠난 이후에도 공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했던 점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온라인에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강연을 시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로 교류도 하고, 잘 모르는 것이 있을 경우, 쉽게 찾아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20대 30대 또는 그 이상의 나이까지도 끊임 없는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믿기 어려운 정도의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시험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학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기업가 정신과 혁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009년도에 재단의 연간 서신(annual letter)에 귀하는 혁신의 중요성과 암울한 미래와 밝은 미래의 차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신 바가 있습니다.

귀하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계셨을 때에 많은 도전에 맞섰고 지금도 아마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문제들의 해법을 찾는 일로 옮겨 가면서도 수 없는 역경을 겪으셨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이러한 도전과 어떻게 이겨내셨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혁신은 어떻게 뿌리내리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려주시겠습니까?

빌: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소프트웨어가 마술적인 힘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탁상 컴퓨터, 광섬유 통신 등의 하드웨어가 값이 떨어지고 있었고, 이때 유일한 제한 요소는 소프트웨어의 질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탐색, 사용자 접속 기능에 대한 발상, 마우스 사용, 글씨 쓰기, 연설 기능 등의 측면에서 컴퓨터 기계를 다루는데 크게 배우지 않아도 쉽게 작동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어 매우 결정적인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오기 전에, 컴퓨터라는 것은 전문가들만을 위한 것이었고 매우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컴퓨터를 다뤄야 했으므로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 컴퓨터화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발상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해야 했죠. 다행스러운 일은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로부터 무엇이 좋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많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개선점을 지적해주는 일부 사용자들에게 제품을 시험해 볼 수 있어서, 앞으로 우리 사업이 어떤 큰 도약을 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많은 아이디어들에 대한 즉각적인 사용자들의 반응을 바탕으로 향후 패러다임의 대 변혁을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조사하게 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한 방안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큰 패러다임의 변혁은 그래픽 인터페이스로의 전환에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컴퓨터 화면이 임의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당시, 정확히 1995년 전까지는 작업 방식의 속도가 매우 느렸고 현재 단순히 화면에 글자를 띄우는 것 이상으로 훨씬 복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환이 올바른 일인지 의문을 품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성공의 많은부분은 회사가 이 그래픽 인터페이스에 승패를 걸은 것에 기인합니다.

그 후 이어서 인터넷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핵심 응용응도에 관한 생각의 측면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절대적인 혁신을 통하여 회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최첨단의 경계선이 더욱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말이 될지, 펜이 될지 예서부터, 이 장치들이 움직이게 될 지, 수 많은 로봇들이 생길지, 기계 학습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계들이 학습을 통해 얻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더욱 지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등 최첨단의 경계선을 넓혀갈 수 있는 많은 과제들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개인으로서 이러한 여러 가지 미래의 시나리오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앞으로 본인이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고, 왜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왜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난점인지, 또는 왜 아직까지 아무도 그런 방법으로 실현하려 하지 않았는지 등의 호기심을 항상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장: 네, 참고로 제가 귀하 회사의 PC DOS나 MS-DOS의 초창기 고객 중의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 좋아요. 그러지요.

학장: 그것은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사용했던 PC DOS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빌: 네.

학장: 자, 이제 청중들로부터 질문을 받아야 할 시간이 왔네요. 오늘 이 강연은 약 50분간 진행되기로 되어 있고 지금 약 30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더 철저히 시간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실 때는 간략하게 해 주셔서 빌 게이츠 씨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아셨나요?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유진호: 저는 원자력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유진호 라고 합니다. 저는 귀하가 TWR에 관하여 한국과 협력을 통하여 어떠한 기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원자력 발전산업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빌: 에너지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수 백년 동안 왜 세계가 많은 진전을 해왔는지 살펴보면, 이는 매우 대단한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에너지 유효성에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학 분야의 저자가 있는데 그는 에너지개발에 대하여 매우 훌륭한 책을 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에너지 개발이 현재까지 일어난 많은 혁신에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겪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은 이와 관련하여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의 에너지 비용은 수 많은 다른 나라에 비교하여 꽤 저렴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는 부분적으로 핵 발전 분야에서 한국이 이루어낸 성과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앞날을 생각할 때 이상적인 에너지는 환경 친화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즉 이산화탄소의 방출이 없어야 하며, 어떤 이유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되면 이를 회수하거나, 순 방출량이 없는 기준을 유지하는 격리 규제를 해야 하며, 오늘날의 에너지 비용보다도 저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비료나, 여행이나, 전깃불 및 난방에 대한 수요는 기본적인 욕구로서 에너지 비용이 얼마이든지 이를 부담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전기 배송망이 없어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디젤을 운송해야 하며 이렇게 되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다른 기술들도 모두 도전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도 미래에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만, 이러한 방식은 아직은 꽤 소규모에 그치고 있고 특정한 지역에서만 간헐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장, 특히 낮은 비용의 대형저장이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핵 에너지의 경우, 많은 도전을 안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원가를 낮추어야 하고, 안전에 관하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형태이든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여야 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해결점을 찾아야 하며,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야에 아직도 충분한 기술 혁신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이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디지털 시뮬레이션 기법에 힘 입어,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한 관찰의 기회는 현재가 과거에 비해 훨씬 나아졌으며,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는 테라파워라는 회사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현재 세계 각국의 회사들과 핵 에너지의 미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고 또한 우리들의 생각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초기 단계의 대화가 진행 중이며, 이번 저의 한국 방문 중에도 이곳 한국업체와도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현재 세대를 뛰어 넘는 차세대의 새로운 혁신을 가져 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을 저희는 제3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생각은 제4세대를 향하고 있으며, 그때면 안전이나, 폐기물 특성과 핵심 특성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보다도 훨씬 나아질 것 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 분야에서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기회가 오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개선된 에너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지 석탄과 천연가스를 주요 수단으로 계속 태울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 많은 차세대 발전소를 짓고 늘려가고 있는 인도나 중국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기후 변화는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이 탄산가스 배출을 전혀 하지 않는 안정적인 기본축으로서의 에너지 발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과제입니다.

학장: 그렇다면 당분간은 핵에너지가 아직은 유일한 대안이라는 말씀인가요?

빌: 아니요, 우리는 환상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추구해야 하고, 이러한 생각을 추구하고 있는 테라파워와 같은 회사들이 수 백 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실현해 내야 합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파트너들을 찾아야 하고, 그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며 아시다시피 이에 대한 대답은 어느 누구도 한마디로 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방법 중에 태양열 화학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는데 매우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태양 빛을 가지고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탄화수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태양열 화학 에너지 방식은 저장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서 결과물로 발생되는 액체 화학 물질은 석유처럼 매우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고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방법을 쓰면 중간에 단절이 되는 단속적인 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 이런 종류의 방법들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너지 시스템을 비용이 낮고 이산화탄소가 없는 방법을 강구 하지 않으면,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잠재적으로 극심한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로부터 가장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저장 할 능력도 없고 관개 수리 설비도 없고 가뭄에 대처 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거의 대부분의 농부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탄산가스 배출을 전혀 일으키지 아니하고 탄산가스 온실 규제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결말이 나면 이는 매우 불공평한 일입니다.

학장: 그렇군요. 맞습니다.

학생: 제 이름은 신부경이라고 하며 동물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Bill & Malinda 재단에서는 생물학적으로 만든 비타민 A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의 배경, 고려사항 및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를 듣고 싶습니다.

빌: 네, 저희 재단은 생물학 기술, 특히 건강, 농업을 위한 생물학 기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백신, 예를 들어 말라리아, 결핵은 물론, AIDS 백신은 미국정부에 이어 저희가 제 2위의 투자가입니다. 농작물 부분에서는 생산성의 대폭적인 증가가 필요하며, 가뭄에 견디는 기술, 비료를 덜 쓰는 기법, 새로운 기법을 통한 병해 저항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한가지 사실은, 학생이 언급한 바와 같이, 미세 영양 물질인 비타민들을 실제로 작물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수 많은 어린이들이 비타민 A, 철분 등 여러 가지 다른 영양소의 심한 결핍 현상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핍 영양소를 그들의 식품에 투입하는데 있어 딱히 쉬운 방법이 없는데, 요오드 같은 경우는 소금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요오드가 첨가된 강화 소금을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요오드 결핍시 겪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다른 종류의 영양소들 같은 경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영양소를 그들의 주식 곡물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곡식이나 다른 식용 작물에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은 강장 보강을 하는 고구마와 비타민 A를 증강하는 '황금쌀'이라고 불리는 쌀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좋은 일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곡물은 유전 공학의 힘을 빌어 만들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농부들을 위해 가격이 저렴하지 부작용은 없는지, 부작용이 없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의약품 실험과 같은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위해 어떻게 실험을 하고 이러한 실험이 올바르게 수행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이 분야에 있다 보면 그런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에 부딪쳐 도전해 보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훨씬 나은 곡물을 개발함으로써 나눌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죠. 현재 아프리카 어린이의 30% 정도가 영양소 결핍으로 뇌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에 얼마를 투자하였던지 간에 기대했던 잠재적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개인은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영양소 공급과 관련된 기술 혁신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러한 '마법의 씨앗'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교수: 빌 게이츠씨, 반갑습니다. 저는 전기 컴퓨터공학부의 교수입니다. 사실은 게이츠씨는 저의 예전 직장 상사이신 셈입니다. 저는 레드몽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객원 연구원으로 전에 근무한 바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빌: 소프트웨어 산업은 과거처럼 국가와 국가간의 구분이 나누어지는 추세가 더 이상 아닙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모든 회사들은 원래 한 국가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실제로 오늘날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세계 각국에 연구소가 퍼져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도 좋은 사례입니다. 특히, 저희가 여러 다른 회사들을 인수하였고 아시아 지역에 회사가 많이 성장하였는데 우리는 이 회사들을 단순히 미국에 기반을 둔 소프트회사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보급이 매우 일찍 시작됨에 따라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와의 통합으로 컴퓨터로 TV쇼를 시청하고 쌍방향 게임을 하는 등 한국에서는 많은 훌륭한 기술 혁신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항상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회사들이 성장하여 세계시장의 강자가 되느냐 또는 국내 시장의 최강자로 남아 있느냐의 문제 혹은 다른 회사의 부분으로 인수될 것인지 또는 최악의 경우로서 대단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었는데 세상에 이를 실제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단지 하나의 모델에 지나지 않을 것인지 하는 이런 모든 생각들은 발전의 이바지가 되고 그 덕에 지난 10년 동안 이곳 한국에는 정말 많은 혁신적인 발명이 일어 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계 시장의 작은 부분을 차지할 뿐입니다. 특히 한국이 인터넷 보급에서는 세계의 선봉에 있는데, 이제는 밖으로 어떻게 진출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을 것입니다. 현재, 다른 나라들

이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중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미국보다 많아졌으며, 인터넷 사용자 측면에서 더 이상 견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미국의 입장에서 이는 매우 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가장 요구 사항이 많은 고객들에게 익숙한데 이것은 이 상황에 부채질을 하는데 일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분야에서 특히 IT와 그리고 확실히 에너지 분야 그리고 적어도 새로운 영역 분야에서는 가장 큰 고객기반은 미국이 아니라 미국 밖의 나라에서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이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벤처 회사형, 소규모형, 고위험 창업형으로 특징 지어지는 미국형 모델 이외의 다른 모델은 서비스 중심형인 인도형 모델일 것입니다. 인도 모델은 그 동안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상품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한 편입니다. 또 다른 제 3의 모델로서는 중국을 들 수가 있는데 아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터넷 회사들이 세계 경쟁시장에는 달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 시장 안에서 혁신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중국회사들은 중국으로부터 벗어나 넓은 외부 세계로는 뻗어 나지 못하고 있어 일방 통행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혁신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국제화 되느냐에 대해 고민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국내 시장에서 시험을 해보고 큰 영향을 끼치고 나면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다른 큰 시장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문제는 아직까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은현: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 드립니다. 저는 생물학을 전공하고 있는 지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 유전체학(personal genomics)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서비스가 전세계적으로 인류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유전체학은 보건학을 매우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과학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농업 과학 측면에서 보면 가장 큰 행운은 식물이 인간과 동일한 유전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건강 의료 시장이 너무도 거대한 덕에 모든 유전공학의 기기장치 및 우수한 기계장비들이 설계 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식물의 생산성이나 농작물 병해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에게는 황재를 얻은 것처럼 이제는 그런 문제들이 단순하게 해결됩니다.

몇 주 전에 저는 중국의 BGR이라는 중국의 그룹사와 만나 업무 협의를 하러 갔습니다. 이 회사는 세계 어느 다른 곳보다도 유전자 배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기계설비의 원가가 내려가는 것이라든지, 개인 유전자 지도의 분석 기법으로 암과 같은 질병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게 되는 점, 암의 종류의 차이에 대한 분석 능력, 암 종류별로 드는 비용, 암과의 대처하는 방법론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대단히 놀라운 현상입니다. 저는 유전자 지도 배열 기법에 대해 그다지 큰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린다면 저는 분명히 이를 선택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같은 암으로 보일지라도 유전자 배열을 분석하면 유전공학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치료를 해야 하는지 파악이 가능하고 유전자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특정한 약물 치료 기계가 적합하다는 식의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전인자의 세부 정보를 이용한 의학적 치료 방식으로 이미 제법 여러 사람의 생명을 건져 내었습니다. 명백하게도, 이른바 시스템 생물학이라고도 불리는 심층 생물학을 이해하는 능력, 즉 면역시스템의 회로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의 단순한 정적인 배치 순서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해해야 합니다. 즉, 단백질이 형성하는 동적인 수식들 같은 것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면 유전자 법칙의 기본 운용 원리를 알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가 놀라운 일입니다. 심지어 전염병 분야에 관하여서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결핵의 경우,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잠복 상태에 있는지조차 잘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약 10년 안에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 조금 더 나은 기반에서 연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에이즈 백신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면역학에 대해 더 알아내야 할 것도 너무나 많지만 유전학을 도구로 삼아 이제껏 이뤄낸 진전을 계속해 나간다면 저는 언젠가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유전 인자 혁명에 관해서 열렬한 신봉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본인의 유전자 분석 결과를 갖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건강에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것은 아직 해결하거나 실행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걱정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가격은 내려 갈 것이며 그렇게 되면 분명한 사실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어떠한 사람이든 유전자 치료 기법은 표준 방식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이는 엄청 난 현상이 전개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약물개발 단계에 멈추어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Ken Kang: 빌 게이츠씨, 저는 Ken Kang이라고 하며, 의대 교수로 핵의학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열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릴을 사용하지 않고 고강도 접촉 기술, 암석의 증기화 등과 같은 새로운 굴착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를 15 km만 파고 든다면 지구 자체는 거대한 핵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의 원천은 매우 다양합니다. 조력 에너지가 그렇고, 육상에서나 해상에서의 풍력이 그렇고, 지상 3000-4000 피트만 올라가도 얻을 수 있는 제트 기류와 같은 고공 풍력이 있으며 여기에 지열까지도 합세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에너지에 관하여 수 많은 집필을 한 최고의 에너지 저자 이외에 David MacKay라는 분의 저서 "Sustainable Energy: without the hot air (지속 가능한 에너지: 허풍 없는 진실)"이라는 책을 보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과 미래의 잠재적인 에너지 원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열은 사실 이러한 에너지 자원 조합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열이라는 것은 한정된 깊이의 지구 표면을 통해서 열이 새어 나오는 것이며,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열을 개발하다 보면 사실상 이는 에너지가 고갈되는 냉점을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지속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열을 추출해내는 셈인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지열 에너지가 풍부한 지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하와이, 옐로우스톤 또는 세계에 다른 지역에 약간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지역들 특히 아이슬란드 같은 곳은 극단적인 사례로서 매우 운이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이 지역에서는 에너지의 100%를 지열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 Mackay씨의 계산에 따르면, 세계 전체 에너지 중 지열이 기여하는 비율은 잘 해야 5% 미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열은 여러 에너지 자원 집합의 한 구성요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질학이라는 매력적인 분야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열은 풍력이나 태양광 에너지처럼 바람이 불거나 태양이 비칠 때만 이용이 가능한 자원과는 다른 에너지 자원입니다. 설령 지열 에너지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도 있는 곤란한 문제들이나 지진발생의 염려도 거론되고 있지만, 그런 우려들

이 지열 에너지 개발의 앞날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위스에서는 지열 에너지 프로젝트를 하다가 약간의 지진을 유발하여 이를 중단한 적이 있기도 하여 지열은 아직 해결 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열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에너지 원천의 집합체의 일부 구성체로서는 인정은 되지만, 태양열, 태양 화학, 솔라 PV (Photo Voltaic), 핵 에너지처럼 지구의 에너지 전체 수요의 문자 그대로 100% 에 가까운 양을 특정 에너지 자원으로 충족 할만한 거대한 에너지 자원은 되지 못합니다.

권희윤: 감사합니다. 저는 국제 대학원에서 남아메리카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권희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연사님께서 하고 계신 일의 방향을 잃거나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은 적이 있으셨다면 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빌: 네, 사실 저는 동기 저하가 자주 되는 편은 아닙니다. 매우 운 좋게도, 제 첫 직장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저에게 매우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몇 번의 실패가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었죠. 이제는 제가 창립한 기부 재단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그 동안 전세계적으로 각종 식량, 질병과 교육 문제를 해결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힘든 면은 항상 있죠. 예를 들어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들의 예산을 보면,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국가 예산은 결국 가난한 국가들을 돕는데 쓸 수 있는 재원을 사실상 줄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상이죠. 왜냐하면 예산을 줄이게 되면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는 백신이나 곡물의 종자는 줄어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국가 예산을 대폭 줄이고 있고, 독일, 프랑스, 스페인 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 호주, 한국 등과 같이 예산을 늘리고 있는 나라들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불균형을 극복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들이 저희 재단이 당면하고 있는 난관들이지만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과학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막다른 길에 여러 번 부딪히게 됩니다. 제 재단은 말라리아 백신 개발에 힘썼고 꽤 효과적이긴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만 그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실상 새로운 백신을 다시 개발하는 방향으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이즈 백신 분야에 있어서도 희망과 기대가 높았지만 아직까지는 임상 시험에 관련 계약 사항들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가 관여될 경우, 그것이 부유한 국가든 가난한 국가든, 대개 부패와 관리부실로 인해 예를 들자면 어린이들에게 백신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방문할 때마다 때때로 체계의 부재와 정치적 부패가 일을 지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발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과 장소들이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에 봉착할 때면 책을 많이 읽고, DVD로 영화도 보고, 테니스도 치고 브릿지 카드게임도 하고 저와는 다르게 걱정 없이 태평한 어린 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대체로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즐기는 편입니다.

Dean: 네, 그렇습니다.

민희: 안녕하세요, 저는 민희라고 합니다. 저는 수의대 학생입니다. 회사를 창업하고 싶은 사람으로써 저는 이윤 창출을 내는 동시에 사회에 유익을 주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 권리 보

호에 관심이 많은 저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Bill: 회사가 어떻게 사회에 환원을 하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파는 조직을 설립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인으로써 그 다음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회사가 직접적으로 하는 일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 일을 통해 얻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자원을 가지고 사회의 다른 분야에 기여를 할 것인지를 문제입니다. 조직을 설립할 때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학생은 이미 동물 권리 보호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으니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야 할 것들은 어떤 나라들이 동물보호에 관한 문제를 잘 다루고 있고 어떻게 성사시켰는지, 어떤 비영리 단체들이 이미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지 등입니다. 저는 동물 보호법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 동물 보호소를 마련하거나 지침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등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동물 권리 보호 분야는 매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사회에 환원을 할 각자의 명분을 찾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수많은 명분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지 망설이게 되는데, 예를 들어 백신 혹은 농부들을 지원하면서 사회에 기여를 하겠다고 했을 때 꼭 그 명분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떤 면에서 그 명분을 세운 자체로 좋은 일인 것이죠.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맡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회 환원을 할 명분을 다양한 분야에서 찾는다는 것과 그런 비슷한 명분을 가진 사람들을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제가 아는 한 동물 권리 보호 분야에서 이윤과 사회 환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모범적인 조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학생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알아봐야 하는 부분이지요.

학장: 감사합니다. 그럼 3분이 남은 관계로 이번 질문이 마지막으로 되겠습니다. 노란 외투를 입은 학생, 질문해주세요.

이도희: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도희입니다.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IT 관련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99%에 가까운 거의 모든 서울대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SNU-EV.com과 같은 비공식적인 강의 평가 시스템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물론 교수님들은 싫어하는 시스템이지만요. 저는 또한 SNU-life같은 사이트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제는 제 회사를 창립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대학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과정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계속 학교에 남아서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할까요?

Bill: 만약 학생이 회사를 창립해서 성공한다면 대학 교과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학위를 마치고 날 경우 학생은 언제든지 고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반면 학생이 만약 학교를 중퇴하고 학위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설립한 회사가 성공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우, 저는 휴학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복학이 가능했습니다. 학생의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하는대로 휴학과 복학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요. 휴학을 해서 창립한 회사가 성공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학교를 떠나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돌아오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

하지만 회사 설립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나 그런 기회가 다시는 얻기 어려운 것이 아닌 이상, 대학에 남아서 좋은 점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시절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매우 좋은 시절이거든요. 한번 사회에 나가게 되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다시 얻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 학생은 어느 쪽이 되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됩니다. 학생은 본인이 말한대로 이미 학생들의 반응을 얻은 웹서비스들을 만들어 제공해보았으니 매우 시장성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학장: 자, 물론 더 많은 질문들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아쉽게도 이번 방문에 연사님의 일정은 매우 빠듯합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저희 서울대학교를 다시 방문하시게 되면 그때 더욱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넉넉한 토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로써 강의 시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 게이츠 씨가 해주신 귀한 시간과 말씀에 감사를 드리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빌: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들 보내세요.